

복잡한 정류장에서 버스에 제일 먼저 타 보셨나요?

남들보다 특출 난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탈 버스에 제일 먼저 타는 것인데요, 나이를 어느 정도 먹어서 그런지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아직 제법 높은 편입니다.



공항진
SBS 기상전문기자

버스에 제일 먼저 오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입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좌석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무 앞도 아니고 그렇다고 뒤도 아닌 적당한 좌석은 물론, 더운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좌석이 찼다면 남아 있는 좌석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르는 것도 수월합니다. 덩치가 큰 사람과 힘겨운 몸싸움을 하면서 힘들게 목적지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죠. 좌석이 1개 밖에 남지 않은 경우 이 마지막 좌석에 앉는 행운의 주인공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은 만큼 버스를 타려는 승객은 대부분 이리 저리 움직입니다. 특히 출근길에는 더욱 그렇죠. 이 때문에 버스에 먼저 오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버스의 도착지점을 정확히 확인해 문이 열릴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정류장의 전체 크기나 버스의 이동 습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하죠.

제가 버스를 타야 하는 경기도 일산의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서는 버스는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광역버스나 M버스 등 여러 종류입니다. 버스 색이 다른 것은 물론 타는 입구나 타는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는 운행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정류장 어디서고 세우면 쉽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광역급행버스는 서는 장소를 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앞차에 타는 손님이 얼마 없는 경우는 서려 하던 버스가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간이 오는 공항버스는 손님이 적다고 하지만 짐을 싣는 시간이 길어 예측이 더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버스 운행에 대한 정보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휴대폰의 어플을 통해 내가 타야 할 버스가 몇 분후에 도착할지, 그 버스에는 몇 석의 좌석이 남았는지 등을 미리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정보 만으로는 버스에 제일 먼저 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막 정류장에 진입하는 버스를 타려면 현재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몇 대 있는지 이 버스들이 모두 어느 정도 움직일 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경험 법칙을 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순간적으로 변하는 돌출 변수도 풀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나 눈 오는 날이 그 예로, 이런 날 버스 타기는 평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산이 시야를 가리는 것도 문제지만 버스의 움직임도 평소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대단한 재주도 아닌 버스 잘 타는 방법을 주절주절 늘어놓은 이유는 누구나 경험하는 버스 타는 일에서 예보의 어려움을 한번 연상해 보면 어떨까 해섭니다. 그나마 변수가 적고 어쩌면 답이 분명한 버스 잘 타기도 이렇게 힘든데, 많은 변수를 다루어야 하는 날씨 예보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날씨 예보는, 근거로 활용할 정보의 양이 충분하고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고 해도 매년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경험을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버스 먼저 타기와 닮은 점이 많죠.

어쩌면 아주 사소한 예에 불과하지만 예보관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며 꾸지람하시면 할 말이 많지 않지만 말입니다.☹

